

메타버스와 교회 존재



박영범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연구교수

메타버스, 새로운 세상?

밝은 햇살이 하늘거리는 커튼을 뚫고 침대에 내려앉는다. 새들은 창가의 나무에 앉아 연신 재잘거린다. 주일 아침의 풍경이 참으로 정겹다. 일어나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컴퓨터 앞에 선다. 창문을 보여주었던 벽은 어느덧 호수 풍경으로 바뀌었고, 천장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휘파람을 불며 VR 헤드셋과 양손 컨트롤러를 착용한다. 머리를 약간하게 빗어 넘긴 12번 아바타를 선택한다. 10년 전 ‘○○교회 문학의 밤’에서 시를 낭송했던 나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이른바, ‘최애 캐릭터’다. 오늘은 교회 앞 100m 전 오솔길로 경로를 선택했다.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길가의 이름 모를 꽃을 보는 재미가 쏠쏠할 뿐 아니라 아는 사람을 만날 확률도 낮다. 교회에 도착하니, 젊은 이성봉 목사님이 나를 반겨 주신다. 초기 성결교회의 부흥을 이끄신 어르신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뵈는 적은 없다. 내 나이 이제 겨우 20살인데, 어떻게 100년 전의 그분을 뵈었을까. 그러나 인공 지능을 통해 구현된 그분의 모습과 말씀은 마치 한 마리의 호랑이가 포효하듯이 힘이 있고 감동적이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마음을 움직였기에 가상 화폐로 감사헌금을 드렸다. 예배 후 서로 안부와 사귀의 인사를 나누고, 바로 집으로 왔다.

오늘날 메타버스(meta-verse)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어쩌면 위의 상황은 조금의 과장이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경험할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중첩된 가상의 세상, 즉 현실 그 너머(meta)에 있는 세상(universe)을 의미한다. 가상 현실(virtual Worlds),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그(Lifelogg), 거울 세

계(Mirror Worlds) 등을 포함하는 복합 개념이기도 하다. 메타버스에 세워진 교회, 이것이 교회의 미래인가? 또한, 가상의 아바타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삶은 교회로서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메타버스 시대와 교회의 본질

한국 교회는 이미 메타버스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온라인 예배는 이제 자연스러워졌고, 성찬식(파이어우드), 여름 수련회(ccc),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새에덴교회) 등이 가상 세계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신학적 견해는 극명하게 갈린다. 먼저, 메타버스 시대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미래이기에 교회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조성돈)으로 보아야 하며, “가상 교회의 존재 근거를 충분히 마련”(김도훈)해야 한다는 다수의 주장이 있다. 반면에 “기독교의 진리가 가상의 현실로 대체될 수 없다”(정장복)라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메타버스 자체를 악한 것으로 간주해 참여하지 말자는 견해도 있지만, 성서적 혹은 신학적 근거가 아직은 너무도 약하다.

이제 다시 우리의 핵심 주제로 돌아오자. 교회는 메타버스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에 대답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에서 출발해보자. 교회는 메타버스의 시대를 피할 수 있는가?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는 일상이 되었다. 온라인 예배와 줌(zoom) 성경 공부는 더는 낯선 개념이 아니다. 향후 3~5년 안에는 메타버스를 통한 일상생활에 친숙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리는 오지 않을 시대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메타버스가 피할 수 없는 가까운 미래라면, 교회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

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메타버스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자신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며 주님의 지상명령(마 28:16-20)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수하고 실천할 것인가? 교회가 꼭 보존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라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다. 하나는 본질적인 측면이다. 여기서 본질은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바로 그것’으로,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거룩하게 된’(고전 1:1-3) 교회라 정의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러 모아주신 거룩한 자들, 즉 성령의 공동체 혹은 사귄’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정체성 측면이다. 정체성은 곧 ‘본질을 계속 동일하게 유지함’이다. 교회는 현실에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을 나눔으로써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다. 즉,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실적 역사하심, 즉 만남과 사귄을 나눔으로써 존재했다. 전통 교회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 혹은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감 등으로 표현한다. 동시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실천할 때, 정체성은 유지된다. 교회는 이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 표현한다. 선교는 복음의 내용과 함께 복음의 능력을 현실로 드러내는 교회의 실천인 셈이다. 복음이 내 삶의 영역에서 현실로 드러날 때 교회는 비로소 생명력을 획득하게 되고, 이것이 이 천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지켜온 정체성이었다.

복음의 실제성과 현실성을 고수하라

앞서 언급한 메타버스 가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먼저, 교회는 교회와 신학의 근원적 문제로서 ‘만남’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다. 그 안에는 역사적 실체이자 계시인 예수 사건이 놓여 있다. 이는 뇌에 전기 신호를 보내 현실처럼 착각하여 대체할 수 있는 사건이 결코 아니다. 일부 신학자는 변화된 현실에서 변화된 예배와 만남의 형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터넷을 통한 가상 예배에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들의 주요 논리는 ‘하나님은 인간을 항상 비대면으로 만나주셨다’(?)라는 것이지만, 이것은 예배와 신학의 일면만을 강조한 주장이다. 복음의 인식적 내용은 전할 수 있지만, 구원의 현실적 누림은 가능하지 않다.

두 번째로 성육신적 그리스도론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스도교적 진리는 초월(meta)의 하나님이 현실(real)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역사적 계시 사건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그렇기에 이런 진리의 영역을 벗어난 논의는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이며, 심지어 소모적 논쟁인 경우도 있다. 즉, 교회의 위기(crisis)를 말하면서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건물을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 교인 수의 감소나 재정 수입의 감소 등을 교회가 위기에 처한 근거로 삼아 변화(change)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실패하고 만다. 인간이 만든 제도나 형성물은 반드시 끝이 있다. 오늘의 교회는 단순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예배에 대한 진지

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 예배는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얼굴과 코에 생기를 받아 살아 움직이게 된 사람이 만나는 사귄의 현장이다. 진정한 만남은 얼굴을 보고, 얼굴을 서로 교환할 때 가능하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실재하는 현실 얼굴의 연장(extension)으로 보기도 한다. 마치, 손이 불편한 사람이 기계 문명의 힘을 빌려 손처럼 활용하는 몸의 연장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거울인 얼굴을 서로 교환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중계되는 예배를 아바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라면, 이는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응답인 경배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 말씀을 공동으로 기념하는 축제”(마틴 루터)인 셈이다. 성서에서 증언하는 처음의 예배는 성전의 상징적인 측면을, 회당(synagogue)의 조직과 전례 등 외적인 제도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들과 완전히 구별된 (1) 예배의 대상과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온 구원의 사건이자, 화해의 만남이 이뤄지는 인격적 축제다. 이 축제는 화면이나 아바타를 통해서 결코 전수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이다.

메타버스와 교회의 실천

그럼에도 메타버스는 교회가 피할 수 없는 미래다. 동시에 인간의 삶을 확장한 공간이기도 하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는 그 공간에서도 여전히 예수의 지상명령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교회가 자신의 본질과 정체성을 메타버스에서도 계속 보존한다면, 교회를 위한 새로운 삶과 실천이 발생할 것이다. 교회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복음의 전파와 교육의 도구로써 활용하라

교회가 메타버스를 활용해 현실보다 더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주로 교회의 교육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성서적 지식의 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상호작용을 통한 쌍방 교육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다양한 감각적 효과를 통해 교육의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학습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3차원 체험 학습이다. 또한, 교육을 게임과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는 도구로써 활용하라

메타버스를 통해 병원 혹은 가정의 병약자나 타국 선교지의 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선교지의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만나 함께 예배함은 선교의 열망과 선교지를 향한 사랑을 불러 일으킨다.

물론 이는 특별한 경우지, 상시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예로, 독일 가톨릭교회인 성 게오르그교회(St. Georg)는 이미 2008년 11월에 3차원 인터넷 세계, 즉 오늘날 메타버스와 같은 개념인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를 과감히 시도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도를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두 달 후, 지루하다는 평과 함께 결국에는 메타버스 안에 세워진 교회가 텅텅 비어갔다. 나이가 많은 신자들은 이 공간에 적응하지 못했고, 젊은이들은 금방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가상의 신부였던 베네데토(Benedetto)는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일한 장점은, 이곳이 겨울에도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콘스탄스 호숫가에 자리잡은 이 교회는 실제로 난방이 되지 않았다.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라

메타버스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세계다. 그렇기에 현실의 세계와 같은 계층적 질서와 욕망이 담겨 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자유로운가? 전혀 그렇지 않다. 시간과 공간을 넘을 수 있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세계에도 죄인인 인간이 활동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가치중립적 세계다. 가치중립적이라는 말은 그 존재 자체로 인간을 선하게 혹은 악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의미다. 만일 메타버스에 있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친다면,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메타버스에 참여해 복음이 선포되고 확장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현실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일과 같다.

메타버스와 교회의 미래

머지않아 그리스도인이 가상의 교회 예배에 자신의 아바타로 참여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상의 성체도 받으며, 찬송하고 기도한다.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이다. 병실에 누워있는 중환자와 먼 선교지의 신자가 예배에 참여하여 그 기쁨을 동시에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간적 제약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효율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다. 교회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선교적, 교육적 차원의 활동인 셈이다.

그러나 성육신적 감동, 실제의 얼굴을 교환하여 얻어지는 영혼의 깊은 떨림은 결코 대체할 수 없다. 물질문명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정신문명은 너무도 느리다. 인간이 지닌 근본적이고 실

존적인 질문에 인간의 지성이나 과학은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는(Homo Deus) 시대(Yuval Harari)는 올 수 없다. 이런 가상의 예배와 교회적 활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하고 본질적 의미를 내포한다면, 하나님은 성육신적 공감의 활동을 펼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전 인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찌면 가장 효율적인 구원의 여정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분의 능력으로 더 좋은 가상 현실을 창조하시고, 그곳으로 인간을 세련되게 초청하셨을 것이며, 그 안에서 초현실적인 구원을 선사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일부 주장은 어찌면 과거 교회가 배척한 양태론적 사고의 부활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실제로,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면하여 예배 가운데 계신다. 이것이 온라인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격적 만남과 사귄의 현실성이며, 예배가 지닌 중요한 의미일 것이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의 공통점이 있다.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새로운 메타버스의 시대가 불행인지 혹은 행운인지는 지금의 인류에게 달려있다는 댛음말이다. 끝을 모르고 질주하는 인류의 물질문명에 누가 참다운 생명과 올바른 윤리를 불어넣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균형의 추를 잡아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미래를 다양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시작하는 지점은 바로 현재,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가는 교회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항상 지나온 걸음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새로운 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며 미래를 맞이했다. 宗